

# 특용밀원수종재배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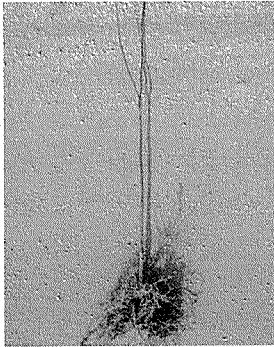
## ● 헛개나무 ●

### • 식재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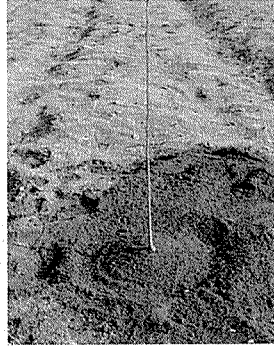
#### - 식재

헛개나무는 우리나라 중부이남 해발 800m이하 지역의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에서 많이 분포한다.

그러므로 식재 적지는 일조량이 많고 북풍과 강풍이 비교적 적은 동남향으로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 또는 과거에 경작하던 한계농지나 유휴농지가 가장 좋다고 할수 있다. 식재간격은 지형이나 토양의 비옥도 및 재배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ha당 1000~1500본 심는 것이 적당하며, 좀 밀식한 후 점차로 형질이 좋지않은 개체를 솎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뿌리가 잘발달된 헛개나무 묘목



헛개나무 묘목 식재

묘목은 눈이 충실하게 잘 발달되었고 잔뿌리가 많은 50~80cm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며, 구멍이를 직경 40cm, 깊이30cm를 파고 식재한다. 초기생장이 빠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 약 3년간은 금비와 퇴비를 혼합해서 시비하면 좋다.

### • 식재 시기

중남부 지방에서는 낙엽이지고 나서부터 땅이 얼기 전 까지 심어도 되지만, 추운지방에서는 동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봄에 해토후 가급적 빨리

식재하는 것이 좋으며, 뿌리 발달이 잘되었어도 가뭄에 대비해서 심은 뒤 잘 밟아 뿌리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

### • 병충해 방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병충해는 거의 없을 정도로 비교적 강하다. 그러나 수체내에 들어 있는 유용물질을 곤충들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심식층의 피해를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 나무줄기나 가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므로 심하면 줄기가 부러지게 되는데 수시로 관찰하여 황토를 잘 이겨서 피해 부분을 메꿔주면 심식층이 죽게되고 상처가 아물게 된다.

## ♣ 음나무 ♣

### • 식재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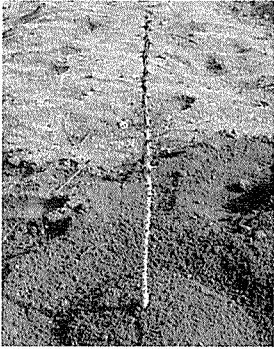
#### - 식재

음나무는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습기가 적당한 사질양토로서 산록과 구릉지, 또는 유휴경작지나 산복의 환경사지가 적지라고 할 수 있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심근성 수종으로 건조한 땅에서도 견딜 수 있고 약산성을 좋아한다. 식재거리는 토양조건 또는 재배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ha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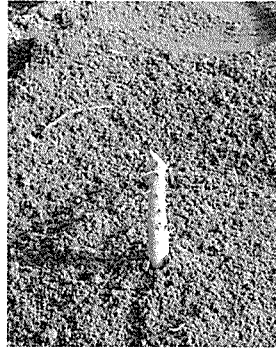
1000~1500본 식재하는 것이 적당하며, 밭에 식재 할 때는 트랙터로 잡초를 제거 할 수 있도록 3.0mx1.5m 거리로 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좋다.

특히 새순 수확과 아울러 밀원을 목적으로 할때는 매년 새순 수확과 동시에 줄기를 잘라주게 되는데, 이때 약 10m정도 거리를 두고 새순 수확이나 줄기 자르기를 하지 않고 천연 그대로 키워서 개화 할 수 있도록 재배하면 자연스럽게 두가지 목적을 달성 할수 있게 도니다.

묘목은 눈이 충실하게 발달되고 잔뿌리가 많은 30~50cm정도를 식재한 다음 사진에서와 같이 지상으로부터 약10cm 부위를 잘라서 새순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식재 활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음나무 묘목의 식재



식재후 약10cm  
위치의줄기를 잘라준다

약 3년간은 매년 2회 정도 풀베기를 해주 고 식재 이듬해부터 해동 직후 유기질비료 와 금비를 혼합 사용 하는 것이 좋다.

• 병충해 방지

음나무를 가해하는 병은 검은점무늬병이 있고 해충은 진딧물, 두릅나무잎벌레, 박쥐 나방등이 있는데 다른나무에 비해서 그리 심한편은 아니다.

특히 박쥐나방유충이 목질부에 침투하여 피해를 주는데, 살충제를 주입하고 황토로 가해부분을 매꿔 주면 상처가 아물게 된다.

## ♠ 쉬나무 ♠

• 식재지 관리

- 식재

쉬나무는 건조한 곳이나 각종 공해에도 잘 견디지만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토심이 깊고 비옥한 곳이 가장 좋다. ha당 1500~2000본 정도 심는 것이 적당하며, 토양 조건이나 비옥도에 따라서 식재본수는 가감하여 심는다.

묘목은 70cm~100cm정도 되며, 눈이 충실하게 발달되고 잔뿌리가 많아야 활착율이 높다. 식재 후 약 3년간은 매년 2회 정도 풀베기를 해주어야 하며,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소모되는 영양분도 많아서 식재한 다음해 부터 유기질 비료와 금비를 혼합하여 가을이나 봄에 시비하는 것이 좋다.



가을에 굴취하여 가식해 놓은 쉬나무묘목



쉬나무 묘목의 식재

